

팀 주제: 일교차 예측에 따른 감기 예방

수업명: 빅데이터 시계열 모형

데이터사이언스학부 김필준,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창우,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김성우, 소프트웨어학부 박현,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강민지 지도교수 : 박현숙

요약

기상청 일별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TBATS 모형을 사용하여 일교차를 예측했고, 감기와 환절기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.

연구배경

- 연구배경: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보면 대유행 발생시기가 환절기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. 환절기에는 여러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다. 따라서, 환절기 시기에 늘어난 감기 환자의 추세를 파악하고, 예측을 통해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자 주제를 선정했다.
- 연구주제: 일교차 예측에 따른 감기 예방

연구방법

데이터 설명

기상청: 춘천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일별기온과 풍속 등 기존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체감온도로 칼럼이 구성되어 있다. 12월 31일은 행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교차를 확인할 수 없어 제거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: 춘천시 일별 감기 환자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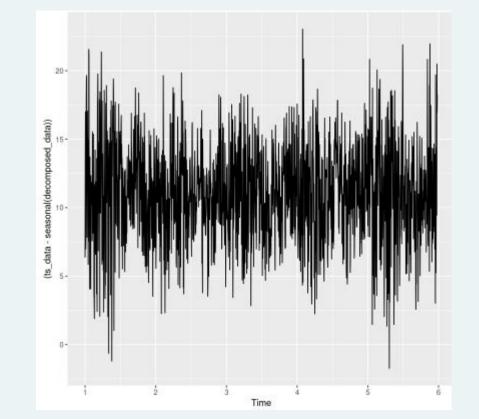
분석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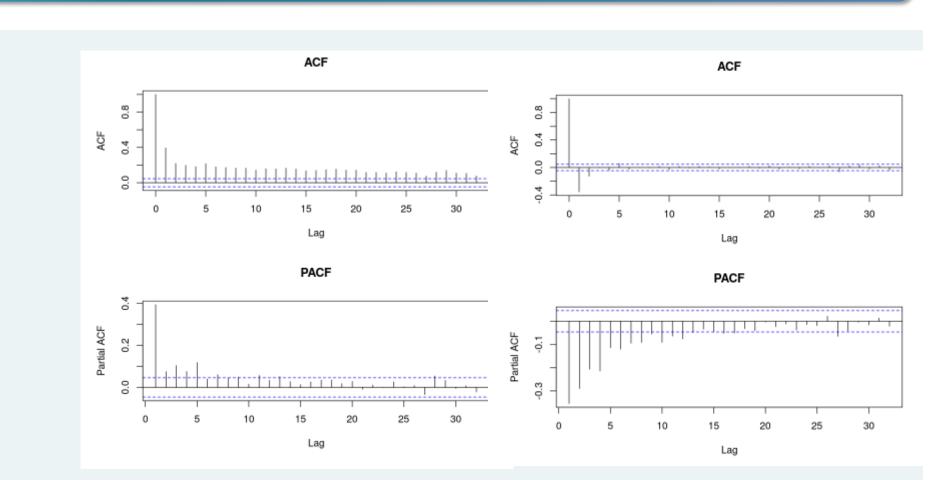
차분을 통한 AR값과 MA값의 모형을 합쳐 예측하는 방법인 ARIMA가 있고, ARIMA와 달리 빈도가 높은 시계열 데이터도 설명할 수 있는 TBATS가 있다.

TBATS 사용 이유: ARIMA는 Frequency를 36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인 일별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부적합하다 생각이 되어 Frequency가 365를 넘어서도 지원을 하는 TBATS를 사용했다.

연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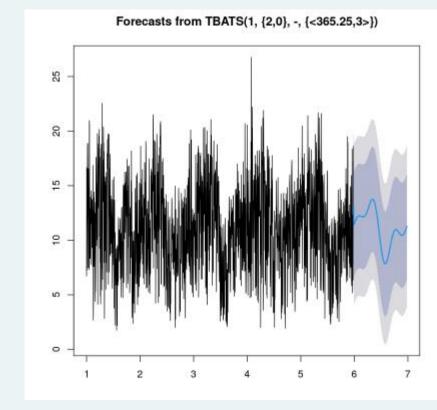
결과 2





- 1. 분해했던 데이터 중 계절성을 추출하여 본래의 데이터에서 차감을 해시각화 한 결과이다.
- 2. 자기상관분석이므로, ARIMA 모형의 q와 p를 결정할 수 있다. 한 번 차분을 한 결과, acf의 lag가 1 이후로부터 정상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, 차분 전에는 pacf의 lag가 5 이후일 때부터 정상성을 이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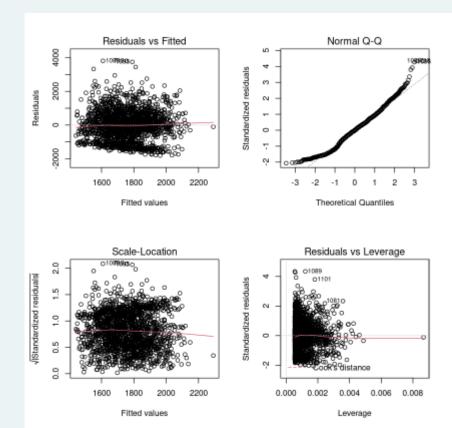
결과 3



cor.test(fdf\$count, fdf\$value)

Pearson's product-moment correl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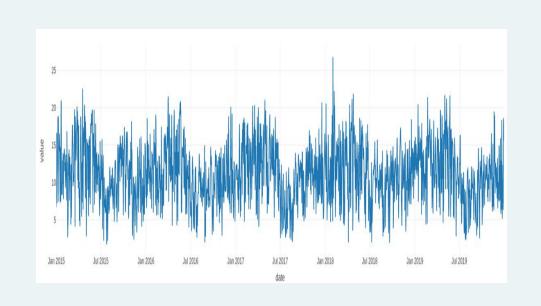
data: fdf\$count and fdf\$value
t = 6.7124, df = 1819, p-value = 2.55e-11
alternative hypothesis: true correlation is not equal to 0
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:
0.1103237 0.1999780
sample estimates:
 cor
0.15547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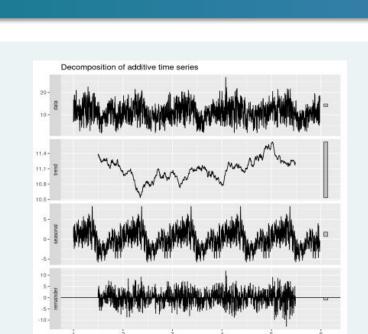


- 1. 주기가 1년이라는 기간때문에 ARIMA 모형을 사용하여 시계열 예측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었다. 그래서, Frequency가 365를 넘어도 지원을 하는 TBATS라는 모형을 사용한 결과이다.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예측했다.
- 2. 감기와 일교차에 대한 상관분석이다. 상관계수 중에서 대표적인 피어는 상관계수를 활용한 결과 P-value 값이 0.15로 낮게 나왔다.
- 3. 선형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일교차와 감기의 진찰 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했다.

연구결과

결과 1





- 1. 일교차 데이터를 가지고 쿼리를 추출한 시각화이다. 1년 주기로 계절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.
- 2. 시계열을 계절성과 나머지 파트로 나눠서 분해했다.

논의및결론

감기 환자의 예측은 할 수 있으나, 상관계수가 낮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.

하지만 상관계수가 작은 편에 속함에 도 어느 정도의 의미있는 상관성이 있 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

